메모 열중 3일 오전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회의 내용을 열심히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朴측 끌어안기 행보 가속

이재오의원 등 박근혜계 의원방 순방 "앙금풀자"

일부선 반대파 인사들 '개별 격파' 우려의 눈길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3일 경선 라이벌이었던 박근혜 전 대표 측 끌어안기에 본격 나섰다.

이 후보 측 핵심인사들이 박 전 대표 측 인사들을 일일이 만나거나 단체 모임을 통해 협력을 당부하는 등 화해의 손길을 공개적으로 내밀고 나선 것.

여기에는 서청원 전 캠프 상임고문을 비롯한 박 전 대표 측 일부 강경인사들이 이 후보 진영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해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양 진영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경선캠프의 실질적 좌장역할을 맡았던 이재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내 박 전 대표 측 인사 방을 일일이 돌며 "그동안 서로 마음고생 많았는데 이제 앙금을 풀고 하나가 되자", "정권교체를 위해 합심하자"며 화해를 공개 제안했다.

그는 8층에 위치한 박세환 의원실에서 시작해 이규택 김무성 박종근 이해봉 김용갑 허태열 서병수 정갑윤 유승민 한선교 주성영 곽성문 의원 등 박 전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방 44곳을 일일이 방문했다.

이 가운데 의원실에 있던 10여 명과는 직접 조우해 화해의 인사를 나눴으며, 특히 박 전 대표 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과는 차도 한 잔 하면서 치열했던 경선과정을 회고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실인 545호도 방문했으나 박 전 대표가 자리에 없어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직원들과 인사만 나눈 채 발길을 돌렸다. 그는 당 중심모임에서 활동했던 맹형규 의원과 경선에 출마했던 고진화 의원실도 찾았다.

이 후보의 큰 형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최근 지역 의원들과 잇따라 오찬모임을 갖는 것도 이 후보의 화합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부의장은 지난 주 박 전 대표 지지성향이 강한 경북지역 의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화합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 낮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당 소속 대구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박종근 의원은 오찬에서 경선 직후 이전 시장 측에서 '반성' 등의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 "자존심 좀 상하게 하지 말라. 이긴 쪽에서 진 쪽을 끌어안고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이 부의장은 "절대 오해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표 측에선 이 후보 측의 이런 행보에 대해 "화합하자는 것은 좋지만 왠지 개운치 않다"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후보 측이 행여나 반대파 인사들에 대한 '개별 격파'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

박 전 대표 측 한 의원은 "화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이뤄지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면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 최고위원의 기습방문을 받은 한 의원은 "예고도 없이 찾아 와 당황했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 약칭 잃은 대통합민주신당 표정

"黨 이미지 또 훼손되나" 당혹

대통합민주신당은 3일 민주당이 제출한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민주신당이란 약칭은) 선관위가 괜찮다고 유권해석을 해서 쓰게 된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지도부 회의를 열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대화 당 대표비서실장은 "당내 법률구조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을 받고 오늘이라도 빨리 대처해야 할 것 같다"며 "정식재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혹해했다.

가뜩이나 당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창당 이후 약 한달 동안 사용해왔던 약칭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돼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존재를 각인시키는 데 적잖은 어려움과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 관계자들은 창당 직후 지분다툼, '도로 열린우리당' 논란,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불거진 유령 선거인단 시비 등으로 손상된 당의 이미지에 또다시 타격이 가해질 것을 우려했다.

우원식 의원은 "당명을 정할 때 당내에서 여러 견해가 있었는데 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을 명백하게 하자고 해서 민주신당이라고 정했던 것"이라며 "당명이라는 정치적 부분을 마치 상표권 등록 심판하듯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지만, 결정이 났으니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앙당뿐만 아니라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 캠프 차원에서 내건 플래카드나 인쇄가 끝난 유인물 등에서 '민주신당' 약칭이 사용된 부분은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유사 당명 사용금지 결정은 정당 사상 최초이자 최고의 망신이다. 신당의 앞날이 걱정된다"며 "신당은 민주당이라는 명품 브랜드에 편승해 유사상표로 국민을 현혹하려 했던 속임수에 대해 반성하고 민주당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연합뉴스

경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3일 오후 국회를 찾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몰려든 기자들에게 빙 둘러싸여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朴 "적당한 시기에 李 후보 만날 것"

국회 본회의 참석…"할 일이 없겠나"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석패한 뒤 외부활동을 자제해왔던 박근혜 전 대표가 2주만인 3일 첫 공식 행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그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적당한 시점에 이명박 후보와 만날 생각이 있다"면서 전날 대구 감사모임에서 말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의 진의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일이 없겠느냐. 이제 국회가 시작됐으니 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 '낙선 사례'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데 국회가 열리고 해서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개회식 참석 이후에는 당분간은 특별한 공식 일정을 갖지 않고 지난 2주일 처럼 비공식 일정 위주의 '정중동'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그는 개회식 참석에 앞서 경선 당시 자신을 도왔던 경제그룹 자문단 인사 10여명과 오찬을 갖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또 저녁에도 지지자들과 만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또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한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지역별 식사모임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박사모' 경선무효 소송 제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은 3일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경선무효 소송 및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대권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사모는"경선과 여론조사 방식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둘 다 반영한 것은 위법이며 원천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美 소갈비도 들어온다는데

이종태

경제부 차장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달 27일 검역재개 결정으로 향후 미국산 쇠고기 개방폭을 갈비 등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수입 위험평가'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할인점들도 활기를 띠고 있다. 전단지를 나눠주며 맹렬한 판촉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지역 축산농가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폭등하는 사료값, 떨어지는 산지소값 등등을 생각하면 하루에도 열번넘게 소사육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주지하다시피 1986년 발견된 광우병은 발병 1년 이내에 100%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전염인자인 프리온은 섭씨 600℃가 넘어도 죽지 않고, 아직 치료법·치료약조차 나오지 않은 '인류의 재앙'으로 꼽힌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정부의 '끝없는 저자세'다. 미국측이 현행 수입조건조차 빈번하게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원칙없는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SRM(광우병 위험물질)을 확인한지 한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검역중단조치를 풀어준 것은,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걱정이라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성명에서 "미국 현지조사를 통해 검역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기는 커녕, 미국측의 문서상 해명만 듣고 검역중단조치를 해제했다"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고흥군 농민단체협의회도 "일본은 지난해 1월 미국산 송아지 고기에서 SRM이 발견되자 즉각 수입중단조치를 취한 뒤 현지조사 등을 거쳐 6개월 후 수입을 재개한 바 있다"면서 "정부가 양국간 조약을 어긴 상대국의 사정을 봐줘가며 제재를 취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흥군 협의회는 오는 11일 '한미FTA 체결에만 눈이 멀어 농민의 고통과 국가의 미래를 외면한'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꼼꼼한 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부는 그간의 '저자세'에서 벗어나 모든 종류의 SRM 제거를 관철시키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 SRM 수출재발방지대책으로 상자포장 전 내용물 육안검사원 배치 등 대책을 제시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일본처럼 구체적인 도축매뉴얼 작성 등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해본다.

/jtlee@kwangju.co.kr